



의회사무국 ☎ 519-5501 ~ 5
http://council.geumjeong.go.kr/



주요 의정 활동

- ▷지난 8월중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에 많은 어린이들이 의회 체험을 다녀갔다. 13일에는 구서동 문화공간 '구수다'의 회원 및 자녀 16명이 의회 체험교실을 실시하여 박인영의원으로부터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같은 날 작은 도서관 어린이 회원 10여명이 의회체험을 통해 정미영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하고 돌아갔다.

20일에는 장전초등학교 어린이와 학부모 20여명이 박종성의원의 설명과 안내로 의회 곳곳을 체험하였다. 지역의 미래 꿈나무들이 어릴때부터 다양한 민주주의의 체험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본 체험교실을 예산확보 등을 통해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 2015년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홍완표의장을 비롯한 금정구의회원은 지난 8월 18일 을지연습 중인 금정구청, 금정경찰서 및 금정소방서를 방문하여 을지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이 을지연습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전쟁 시 혼란스러운 상황의 대처를 연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에서는 비상사태 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놓은 ‘충무계획’을 재정해 놓았다. 그런데 계획만 가지고는 실전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어 매년 ‘을지연습’을 통해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평소에도 긴급상황에 대비해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금정구의회는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매년 그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구 정 질 문

금정구의회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5년 7월 24일)



정종민 의원

제목 : 중증장애인 기술훈련원 부지 매입 관련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훈련원 건립 사업비 중 1억364만원을 반납했다. 총 45억원 중 시비 15억원을 교부받아 14억원으로 이미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비의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반납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이 모 전 시의원의 제안으로 금정구가 2012년 10월 8일 부산시에 건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는데 11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야 국비 지원이 불가능함을 인지했다.

토지 매입과정에도 예정 부지가 수차례 변경되고,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가 생략된 점과 매입가와 부지 형태 등도 무리한 면이 보인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금정구의 행정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시의원 요청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통제 기능이 작동을 멈추었고 의회의 견제기능이 훼손되었다.

금정구에서는 중증장애인 기술훈련원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금정구가 보인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본 의원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여 제출해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개선방안을 아울러 수립해 달라.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심의회가 요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심도 있는 검토 절차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공유재산취득 심의회의 기능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와 구의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 원 칼 럼



오희주 의원

제목 :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번거로움을 감내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0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범정부적 훈련을 통해서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비상사태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연수 차 캐나다 맥길대학을 방문했을 때,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기숙사 전체에 큰 경보음이 울렸다. 기숙사에 있던 교사들은 샤워하던 학생들까지 수건만 두르게 하여 모두 대피하게 했다. 캐나다 현지 교사들은 연습일 수 있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침착하게 7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백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그 시간 동안에 누구도 경보기를 해제할 수 없었다. 소방차가 5대 출동하고, 건물 내에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지, 건물 내 안전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소방수가 경보를 해제해 주었다.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위협적인 경보음과 소방차에서 계속 비추는 붉은 경고등, 진지하게 건물 곳곳을 살피는 소방수들은 우리를 충분히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 외국인 학생들은 긴장감을 못 이겨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20여분에 가깝게 진행된 이 훈련 동안, 나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은 훈련이라 생각 못할 만큼 긴장했다.

소방수들이 점검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예고 없이 진행되는 훈련이었다고 알려주었고, 매년 서너 차례씩 이런 훈련들을 통해 건물에서 대피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경로, 안전시설들을 점검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소에 이렇게 기습 훈련을 반복해야 실제 위기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맞는 말이다.

을지훈련 참관 중에 지난 달 캐나다에서의 내 대피 경험이 교차되면서, 매년 4일간 진행되는 을지훈련으로 전국민의 위기대처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지금의 우리, 미래의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기습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할 의지가 과연 있을까?